

염주 사기판매 피해 확산

불사금 마련 빙자 개당 20만원 넘게 팔아 불법단체 전국서 활개...스님·명사이름 도용

장학기금마련이나 팔만대장경 불사, 교도소 교화 후원회회를 빙자한 고가(高價)염주판매 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8월 24일 부산에서는 '만공스님 초청 소원성취회'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만공스님 법문, 2부 법상스님의 축원, 3부 연비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2부에서는 '축원에 대한 정성공으로 하루 1천원씩 모아 7개월에 걸쳐 지대로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축원카드를 작성해 했다. 염주는 법회참석 기념품으로 화가 종광스님의 인체본 그림과 함께 모든 참석자들에게 증정됐다. 사실상 염주를 21만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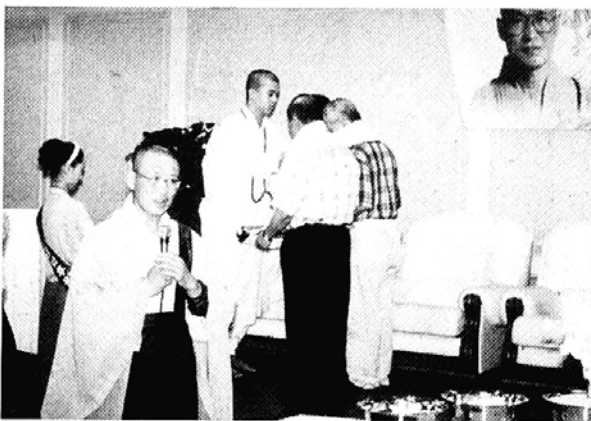
판매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를 진행한 '대한민국 제2 건국 팔만대장경불사회'와 '자비실천불자연합회'는 염주판매를 위해 급조된 단체로 밝혀졌다. 팔만대장경불사회 운영위원이라는 명함을 건넨 주최측 하대봉씨는 "만공스님의 의미있는 불사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염주판매를 극구 부인한다. "두 단체가 염주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시인하고 "염주판매 수익금을 자신과 스님이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사는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차례나 열렸으나 팔만대장경불사회 회장으로 안내장에 기재된 종광스님은 한차례도 참석치 않았다. 종광스님은 법회가 열리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서울 용봉사 주지인 만공스님이 주지로 있었다는 신흥사와 조계사는 조계종 교구본사가 아닌 사실사암인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9일 인천의 모예식당에서도 '스님의 교화사업 기금마련 및 법흥스님 초청법회'라는 타이틀로 법회가 열렸지만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계종 원로 법흥스님이 오시는 줄 알고 왔는데 노스님과 이름이 똑같은 스님이 마치 악장사처럼 염주장사를 해 기본도 나갔고 마치 불교를 팔아 장사판을



◊ 불사금 및 장학기금마련을 빙자한 염주판매 기금마련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7월 부산에서 10일간 열린 염주 사기판매.

벌이는 분위기라 불쾌했다"고 본사가 제보했다. 한편 이같은 염주판매 법회는 7월에도 한 유명불자수가 회장으로 있는 장학회의 기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염주는 한 회사에서 공급받으며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털어놓은 하씨의 말에 따라 중단이나 중단협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조계종 효법부는 이와 관련 "불자들의 순수한 자비심을 이용해 염주 건강기구를 배포하고 고액의 약정사주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운·천미희 기자 (swjung@buddhopia.com)



◊ 천태종 법회신림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사경집을 머리에 이고 해탈을 발원했다.

천태종 구인사서 첫 법화산림

3일간 사경...오종법사 되길 발원 3만신도 운집...기념탑 조성키로

"법화경 사경공덕이 헛되지 않게 일상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일체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살한 (법화경)을 5개월간 배곡하 노트에 사경한 불자들은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본산 구인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법화산림법회에 참가하여 부처님전에 간절히 발원했다.

지난 3일부터 집수를 받아 영산불공과 함께 사경불사에 동참한 3만여명의 불자들은 이날 대학노드 2권본량의 법화경사경집을 곁에 보자기로 싸 머리에 이고 부처님전에 동헌했다. 동참불자들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구인사에서 천태종 총회회장 덕산스님으로부터 법화경 법문을 듣고 관음정경을 해했다. 천태종은 이번 사경불사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 본말사에 사경불자

들의 공덕을 기리는 불탑을 세운다. 또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수지(受持) 독(讀) 송(誦) 해설(解說) 서사(寫經)를 통해 참다운 오종법사(五種法師)가 되어 수행정진함으로써 해탈에 이르게 하는 사경법회를 매년 개최키로 했다.

김원우기자
**독거노인돕기 대회
고산스님 부산서 벌여**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부산 시민회관에서 독거노인돕기 대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신문사 주최, 성재문화원 주관으로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을 바르게 닦아 어느 한곳에 고정점이 없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며 불자들의 바른 정진과 신생활을 당부했다.

동화사 포교활동 강화

상임포교사·통역인배치...홍보책자 보급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가 포교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동화사는 자체적으로 선발한 상임포교사 10명과 대구관광협회(회장 김중수)에서 파견한 전문통역가이드 6명을 8월 25일부터 경내에 배치, 사찰안내 및 외국인 통역을 맡기고 있다. 이를 위해 동화사는 경내에 안내부스를 설치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가이드 41명씩을 매일 상주시키고 토·일요일에는 상임포교사들이 교대로 사찰안내를

하도록 했다. 동화사는 또 격월간으로 발행하던 동화사보를 9월부터 월간으로 바꾸고 규격을 타블로이드판으로 확대하는 등 격(格)을 한단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동화사 안내책자를 기존의 한글판외에 영어와 일어판을 발간하고 총50쪽분량으로 늘려 과거사, 부인사, 부도암을 팔공산에 소재한 사암을 포함시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진안군 관람로 지금 판결 마이산탐사 분쟁 해결

진안 마이산 탐사와 진안군이 사찰관람로 예치금 사용과 관련하여 97년부터 3년간 진행된 분쟁이 탐사의 불법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보현)는 8월24일 탐사가 진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탐사예치금 사용 승인요구 재판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예치한 탐사 관람로 4억7천6백만원에 대한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탐사의 도지정문화재인 석탑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재 환경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만큼 진안군이 관람로 사용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문화재예치금을 탐사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87년 대웅전 신축공사당시 진안군이 관람로 예치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98년 탐사가 주변환경정리사업과 관련 관람로 예치금 사용신청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동원불교교사대 졸업식
어린이 지도자 45명 수료**

어린이 불회지도자 양성을 위해 개교한 동원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은 21일 보현선원 법당에서 제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연맹회 총재 정관스님, 부산 불교연맹회 회장 상오스님, 졸업생 45명등 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강서성 답사 마친 조영록 교수 "보화사, 구선선문과 인연깊다"

중국 강서성을 답사하고 돌아온 조영록 교수(동국대)가 학계에서 처음으로 중국 한 국 선종사찰 답사기를 준비하고 있다.



산선문 관련 여러 스님들이 구법여행을 한 곳으로 공공산 보화사(寶華寺)를 꼽는다. 9세기 전반기 보화사에 서당 지장스님이 주석

하고 있을 때 구산선문 가운데서도 가지산과의 도의선사, 실상산파의 홍직선사, 풍리산파의 혜철선사 등이 구법행각을 펼쳤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이처럼 우리나라 구선선문 가운데 3곳의 산문이 보화사에서 법을 이어갔는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번에 답사한 강서성의 많은 사찰들 가운데 구

우리절 불가 범흥시 흥녕선원

21세기 선불교 중흥도량 건립

삼천불전·일주문 복원
문화재 반환운동 벌여

선라 구산선문종 사자산문의 근분도량이며 5대 적멸보궁중 하나인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범흥사(주지 도완)가 21세기 인류의 정신이 될 선불교 중흥도량으로 거듭난다.

범흥사는 2천여명의 스님들이 참선수행에 정진하는 중흥 수행도량의 보금자리였던 흥녕선원 복원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선전터를 개설한다.

또 천년기림의 위용을 되찾는 삼천불전 등 각 당우를 복원하고 사자산문의 제2 개창 의미를 담은 일주문을 건립한다.

범흥사는 8월 25일 적멸보궁을 찾는 참배객과 기도객들의 편의를 위한 식당및 요사채 건립 기공식을 갖고 중흥복원을 위한 첫 삽을 떴다.

현해(월정사주지) 원행(삼화사주지)스님을 비롯하여 김태호의원(한나라당) 김태수 영월군수, 박순옥 영월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공식에서 주지 도완스님은 "범흥사 중흥을 위해 1차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식당과 요사채 2동을 경내와 중대에 내년말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0373) 374-9177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워더 김희균 합창
서울 종로구 명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숨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원장 이영숙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6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유희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순수한 정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기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확립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宇'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과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①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宇(말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과 차단) 특별보사!

②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기정 1부씩)

용린 佛宇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62-499 조점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①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치지 않고 힘뻑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리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② 염불 공강정 특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물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고 침은 마르면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신의 운율대로 해야 단정중음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 전에 힘있게 흘러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염정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 장쾌함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좌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통독2회, 석가모니를 염불 정진,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좌선호흡법, 수행상담 질문,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형,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엄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집한다.

◆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시간 (일요일 3만원, 보통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울곧게 잘하시는 고탐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차를 앞에서 다량의 악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적이 까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의 법왕정사 수행원
물빛고운 소금강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범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인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현 수행전문도량임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활동에 참여하실 불자 직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모집 기관	확산종합 사회복지관 포항지철치원센터	장애아조기 치료실 특수교사	무료노인 요양시설 '정애린'
모집 인원	5명	1명	3명
모집 내용	경력사원 신입사원	치료사	간 호 사 생활보호원 취 사 원
응시 자격	4년제대학 사회복지학과 및 경영 상계열 졸업자, 졸업 예정자	특수교육학과 및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간호사자격 증소지자 및 간호조무사 포함
공통 사항	사회복지사 대학원졸업자 관련기관경력자우대		침식가능자 우대

1. 제출서류: 이력서1부, 자기소개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격증사본
2. 제출기간: 1999년 9월15일까지(우편접수가능)
3. 문의처 : 확산종합사회복지관 0562)248-6165, 6166